

# 가판대

2007. 10. 8 (월) ▶ 10. 12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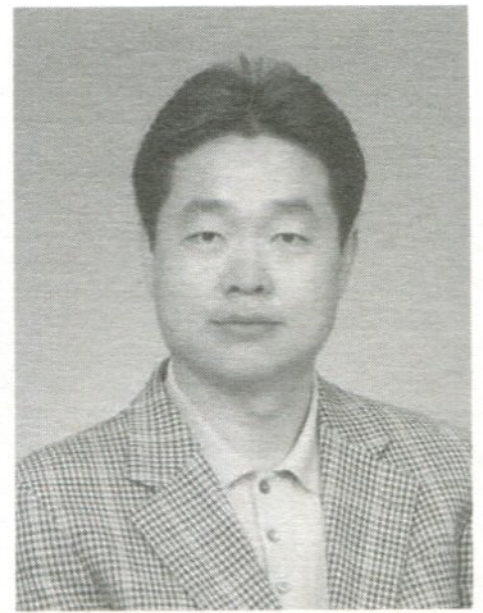
- 공연시간 : 오후 7시 (총 5회 공연)
- 공연장소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공연문의 : hansaebel.or.kr  
(019-443-7502, 011-550-2336)
- 예매처 : 영광도서(서면), 문우당 서점(남포동)  
바다무대부산공연뮤지컬연극클래식  
(<http://cafe.daum.net/pfree7>)

심상교 작  
황인업 연출  
이효동 기획



후 원 :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협 찬 : 부산외국어대학교, 대신주조(주), (주)한성기업, 고려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정진모정형외과의원, (주)카포스, 현대자동차 민락대리점



심상교(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bnue33@naver.com

(가판대 앞에서)

남자2, 신문을 펴든다. 실소를 머금는다.  
 남자1 : 와? 뭐 있나?  
 남자2 : 못됐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란다.  
 남자1 : 아~. 그거?  
 남자2 : 부도덕한 놈!  
 남자1 : 남녀 속을 우찌 알겠나? 도덕부재만으론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지도 모른다.  
 남자2 : 무슨 소리고? 부럽나?  
 남자1 : 삶이 복잡다 아이가.

(가판대 옆에서)

남자1, 남자2 건배하고 마신다.  
 남자1 : 행님, 그 영화봤는교? 로미오와 줄리엣  
 남자2 : 그거 원래 연극이다.  
 남자1 : 그란교? 원래 연극이였는교? 봤는교? 와 간지럽데.  
 (눈을 감으며 로미오 줄리엣 연기를 한다.)  
 그대의 입술이 내 입술에서 죄를 씻어내도다. 오, 이렇게 달콤할 수가. 내 죄를 돌려주소.  
 남자2 : (술잔을 들며 소리친다.) 무라!

(다시 가판대 앞)

김씨 : 어제 어떤 후배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같이 연극활동 하는 후배입니다. 우리는 왜 연극을 하는가? 라고 썼더군요. 여러 답이 가능하겠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게 연극은 대리만족입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 살아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인생을 연극에서 체험합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을 메워주고 대신해 주지요. 연극에는 치명적인 사랑도 있고, 부도덕한 사건도 있습니다. 한 번 쯤 그런 상상해보지 않습니까. 상상이 연극에는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가판대도 그렇습니다. 가판대에 앉아 장사를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다정하고 험악한 사람들과 교감하고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권도 맞아보고 그것을 훑쳐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자가 되보기도 하고 말이죠. 실제 삶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어찌면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삶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 작품해설

사람의 일상은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집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가판대도 그 중 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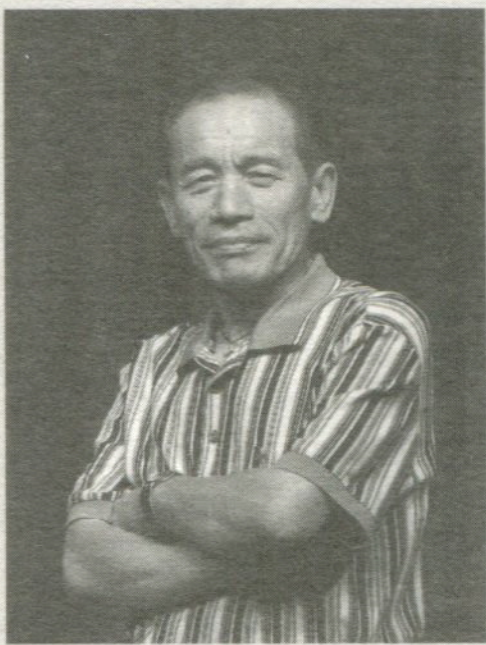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의 일상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얽힘이 더 복잡하고, 음모와 질투가 더 간악하다. 가판대 주변도 그런 곳의 하나로 보인다. 필요한 물건만 사고 지나치는 것이 가판대와 일상과의 관계일터지만 가판대 주변에 사는 사람, 가판대 주변을 맴도는 사람 몇 명에게 가판대는 빨래터고 사랑방이다. 우리네의 빨래터와 사랑방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던가. 어떤 글로도 다 하지 못할 그런 삶이 있지 않던가.

「가판대」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힌 가판대 주변의 어느 시점을 보여준다. 가판대에서 물건을 산 사람들 사이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골격을 이룬다. 어느 날 가판대에서 아가씨, 남자2, 남자3 등이 물건을 산다. 담배도 사고 라면도 산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3은 돈 천 원을 줍는다. 그 돈은 아가씨가 거스름돈 받아 들고 가다가 흘린 것이다. 남자3은 그 돈을 주워 복권을 산다. 그런데 그 복권이 일억 원에 당첨되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남자3의 주장이 그렇다. 와중에 아가씨는 거스름돈 천 원이 부족하다며 가판대 아줌마를 몰아세운다. 과정에 아줌마, 남자2, 남자3, 아가씨는 다투게 되고 경찰의 개입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를 받던 중 남자3은 복권을 떠올리면서 일억 원짜리 복권을 분실했다며 억울해 한다. 복권을 찾게 해달라는 애원에 형사까지 끼어 여러 명이 복권을 찾게 되고 찾으면 돈을 공평히 나누기로 한다. 사람들이 복권을 열심히 찾지만 복권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가 복권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암시만 남을 뿐이다. 복권당첨으로 어려운 가정사정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었던 남자3은 잃어버린 복권을 찾지 못해 실망이 크다.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까지 한다. 급기야 살인을 저지르며 미쳐간다. 욕망의 허망함이 정치가와 정신이상자 김씨에 의해 우회적으로 풍자되면서 극은 마무리 된다.

등장인물은 가판대 주인아줌마, 남자1·2·3, 형사, 아가씨, 김씨, 정치꾼 등이다. 아줌마는 세파에 시달려 안 밖으로 단단해진 인물이다. 가판대에 앉아 주변의 인물들을 호령하고 달래기도 한다. 남자1은 여자와 남자를 연결하는 ‘뼈끼’ 정도 된다. 남자2와 3은 동네 선후배로 끈끈한 사이다. 아가씨도 가판대 근처에 산다. 하는 일이 분명치 않지만 술집 출입녀라 할 수 있다. 김씨는 사고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인물로 가판대 주변을 청소하며 비이성적인 소리를 한다. 정치꾼도 가판대 앞을 지나다니는 인물이다. 세태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인물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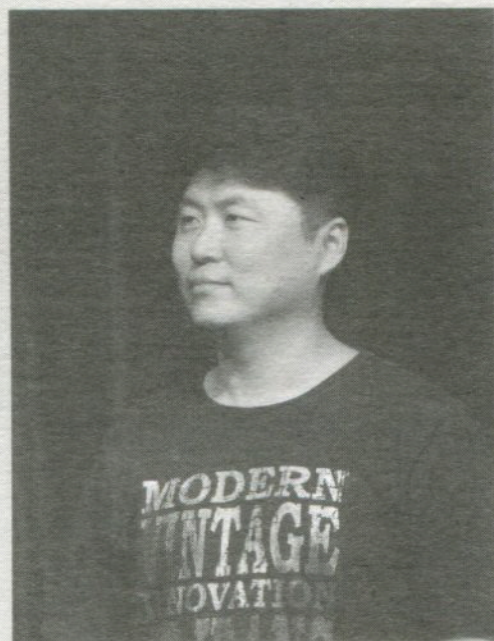
다정하게 혹은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끔은 멸시적 태도로 서로를 쳐다보기도 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돈이 개입되었을 때 인간은 또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도 보여 준다. 이를 관찰하는 재미가 「가판대」에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내면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풍자한다.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많다. 그 웃음 속에 인간 세태의 구부러짐을 바라보면 좋겠다.

# CAST



**김씨 : 주용욱**

jyu1891@hanmail.net  
카텐자, 사계밖의 겨울, 밤의묵시록,  
가시덤불, 일식, 산천에 봄은 다시오고,  
적과 백, 거짓말이야, 짬뽕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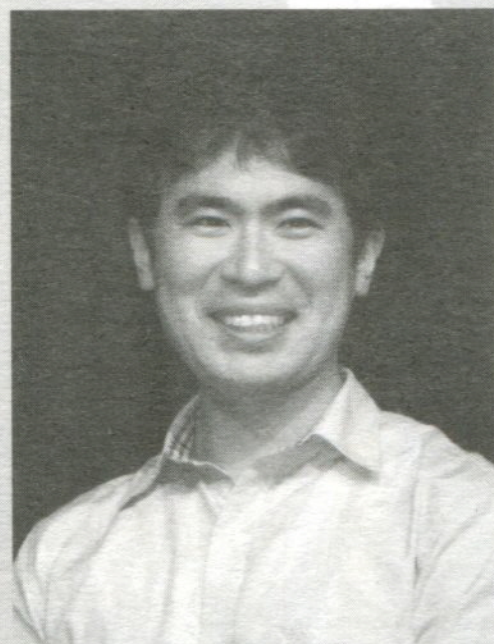
**남자3 : 곽상국**

ksk9608@hanmail.net  
마술가게, 교사일지, 세일즈맨의 죽음,  
영월행일기, 아름다운 사인,  
양덕원이야기, 짬뽕 외 다수



**정치길 : 최영웅**

9405032@hanmail.net  
거짓말이야, 교사일지,  
세일즈맨의 죽음, 아름다운 사인



**남자1 : 이태운**

redpupple@hanmail.net  
택시드리벌, 양덕원이야기,  
아름다운 사인



**아줌마 : 윤미숙**

ms0629@hanmail.net  
아름다운 사인, 거짓말이야,  
양덕원이야기, 짬뽕



**아가씨 : 김지연**

mysilverfish@hanmail.net  
택시드리벌, 마술가게,  
거짓말이야, 짬뽕



**형사 : 이준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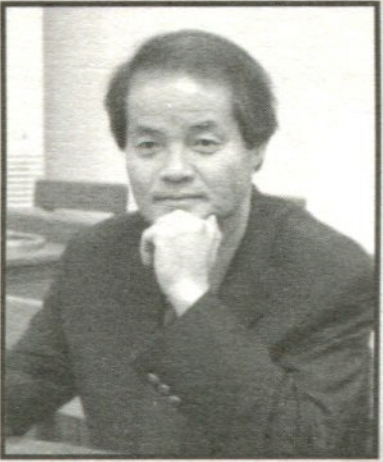
www.cyworld.com/leejunheon  
moviestar7@hanmail.net  
한세벌극예술연구회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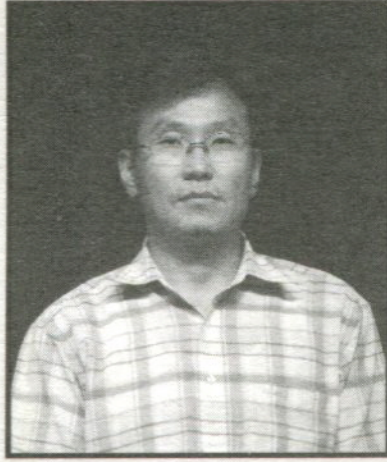
**남자2 : 신장우**

www.cyworld.com/jjangwu  
geruri@hamnamil.net  
한세벌극예술연구회 단원

# STAFF



예술감독 : 한상한  
savin57@chol.com



기획 : 이효동  
hdongmyn@hanmail.net



섭외 : 이성규  
sunglee45@naver.com



조연출 : 김민수  
mujjinteacher@hanmail.net



무대감독 : 정용식  
ys2336@hanmail.net



조명 : 김병철  
kbadaro@hanmail.net



조명 : 김실근  
ksg@pen.go.kr



음악 : 김은정  
virgoej@hotmail.com



음악 : 경재희  
magiccloud@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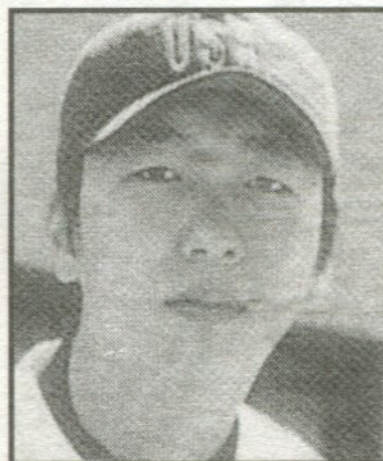
음악 : 우혜선  
wooheaseo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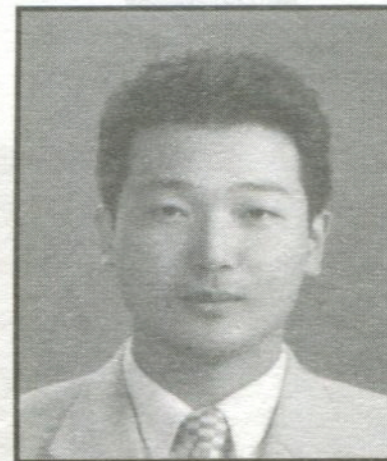
무대디자인 : 이은주  
9708021@hanmail.net



무대디자인 : 황용대  
hwang1932@hanmail.net



무대디자인 : 황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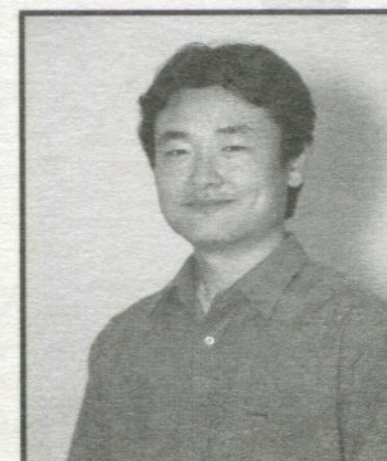
무대장치 : 최동식  
cds1224@hanmail.net



무대장치 : 최재영  
hansaebeol95@hanmail.net



무대장치 : 손종우  
neverstop-son@hanmail.net



무대장치 : 여수진  
loodyjin@hanmail.net



분장 : 나중기  
hana7351@hanmail.net

# STAFF



분 장 : 임경란  
igyura@hanmail.net



분 장 : 김지순  
jeesoon101@hanmail.net



분 장 : 이희녕  
nalgae1104@hanmail.net



분 장 : 김고순  
ellis8191@hanmail.net



소 품 : 정경화  
jkh3004@hanmail.net



소 품 : 김성진  
forhappy@hanmail.net



의 상 : 박경미  
dadazaza@hanmail.net



의 상 : 전은경  
heidi-jean@hotmail.com

정성을 다하는 병원

**정진모정형외과의원**  
Dr. jung's Clinics of orthopaedic surgery




원 장  
의학박사 / 전문의  
정진모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105 다대농협 사거리 입구  
Tel : 263-0311  
jeungcos@yahoo.co.kr

손해보험전문법인

**carpos**  
카포스(株)

대표이사 : 안호일  
TEL : (051)802-7599  
FAX : (051)802-3231  
H. P : (011)9534-0146

(삼성, 현대, LIG, 동부, 메리츠, 쌍용)

**HYUNDAI** Official Partner

EURO 2008  
Austria-Switzerland

민락대리점  
**정진열**

현대자동차주식회사  
613-828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62-6  
TEL : 051-751-0045 FAX : 051-751-0395 M.P : 010-2830-7755  
www.hyundai.motor.com